



**정혜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김한모.바로로 916-207-4806  
 본당부제:김병준.바로로 217-352-2487  
 본당부제:김상돈.도밍고 916-580-8519  
 사목회장:이주순.울리오 530-906-0262  
 연령회장:고원석.바로로 916-813-4440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916-368-9204 Fax;916-368-8304

오늘의 말씀 제1독서 레위기 13:1-2.44-46 제2독서 코린토1 10:31-11:1 복음 마르코 1:40-45

◎말씀 < “그는 떠나가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마르 1,45) >

나병은 예수님 시대뿐 아니라 구약성경과 오랜 유대교 전통 안에서 하느님의 저주를 받아 생긴 징별로 간주되었습니다. 따라서 나병은 공동체나 사람들에게 격리해야 하는 부정환 병이며(레위 13,45-46 참조),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몸은 살아 있지만 실상은 생명이신 하느님의 은총과 단절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이 취급받았습니다.(민수 12, 12 참조)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에서 가까이하는 것조차 금하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어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율법은 사람을 위해 만든 것이며,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율법을 제정하신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마르 2,27)

오늘 복음의 이 사건은 마르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함구령’ 이 나오는 첫 번째 치유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나병환자를 치유하시고 그를 곧바로 삶의 현장으로 “돌려보내시며 단단히 이르셨다.”(1,43)고 복음은 표현합니다. 그분의 명령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일어난 일에 대한 ‘함구령’ 이고 둘째는 그 일을 증명하기 위해 정결 예식을 행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1,44) 그런데 치유된 사람은 예수님의 함구령을 거슬러 오하려 ‘선포자’ 가 됩니다. 치유된 이는 떠나

가서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하였다.”(1,45)고 복음은 전합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다’ 는 말이 있지요. 더군다나 하느님 나라의 비밀, 영원한 생명에 관한 비밀은 당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고 또한 선포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받아들인 건 받아들이지 않건 관계없이, 그 선포가 나에게 도움이 되건 손해가 되건 상관없이 진리는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천주교 신자들은 자신의 신앙에 대한 확신과 선교 열정이 부족하여 외적으로 신앙을 드러내지 않고 과묵한 삶을 산다는 평이 많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믿는 바를 삶으로 증거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복음에서 치유된 이가 우리에게 보여 주는 본보기가 아니겠습니까? 아직 믿음을 증거 하는 일에 주저하고 있다면 나병환자처럼 예수님 앞에 나아가 도움을 청하도록 합시다.

“주님, 당신은 하고자 하시면 저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저를 도와주십시오.”

일 자	전 레 력	미사시간	우리들 정성(지난주)	
2월 13일(화)	연중 제6주간 화요일	오후7시30분	교 무 금 주일헌금	\$ 4,940.00 \$ 1,178.00
2월 14일(수)	재의 수요일	오후7시30분	성소후원 사회복지	\$ 222.00 \$ 204.00
2월 15일(목)	재의 예식 다음 목요일	오후7시30분	성 물 방 기 부 금	\$ 369.00 \$ 0.00
2월 16일(금)	설	오후7시30분	기타수입 사제관건축	\$ 0.00 \$ 0.00
2월 17일(토)	재의 예식 다음 토요일	오후7시30분	합 계	\$ 6,913.00
2월 18일(일)	사순 제1주일	오전 9시 오전 11시	미사참례자	아동: 40명 성인: 192명

교무금봉헌자 최응철(3-4월)김기상(1-4월)정춘자(2-3월)주문엽,고원석(1-3월)송민자.류승교.백정심.서희석.조영진(1-2월)박성호(12-1월)전정옥.이경희.장대석.고정하.지영욱(1월)김규철.김병일.이상현.이재덕.구준모.김은태.김옥련,김상돈.남필레.최이수.허형.지복원.허용희.엄규홍.김병준.박용호.김영숙.박병수.김선식(2월)

◎신앙생활(본당의 새신;본당은 친교의 집.기도하는집.동네의 샘입니다)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그리스도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느님의 사랑은 마침내 당신의 아드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를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복음’ 즉 기쁜 소식이라 부릅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다양한 칭호들을 통해 예수님 안에 계시된 신비를 알아봅니다.

1)예수 : ‘예수’ 라는 이름은 “하느님께서 구원하신다.” 는 뜻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께 전해 준 예수라는 이름은 그분의 신원과 사명을 동시에 나타내는데, 예수님께서는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마태 1,21) 분으로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 필요한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사도 4,12)

2)그리스도 : ‘그리스도’ 는 히브리말 ‘메시아’ 를 그리스말로 번역한 것인데 ‘기름 부음 받은 이’ 를 뜻합니다. “하느님께서 예수님께 성령과 힘을 부어” (사도 10,38)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지닌 고귀한 소명을 나타냅니다.

3)하느님의 아들 : ‘하느님의 아들’ 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심으로써 하느님과의 유일하고 영원한 관계를 계시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통해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확실히 밝히셨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느님과 온전히 같은 본성을 지니신 하느님의 외아드님이시며 또한 하느님 자신이십니다.

4) 주님 : ‘주님’ 은 하느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거나 그렇게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하느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스승님’, 또 ‘주님’ 하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나는 사실 그러하다.” (요한 13,13) 또한 바오로

사도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계시 뿐입니다. ...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합니다.” (1코린 8,6)라고 말합니다.

5)하느님의 어린양 :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노예생활에서 해방될 때 어린양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릴 사명을 받은 세례자 요한은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 (요한 1,29)이라고 예수님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어린양이라 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어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드러냅니다.

6)사람의 아들 : 예수님께서는 친히 당신 자신을 ‘사람의 아들’ 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참하느님 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임을 드러내십니다. 451년 칼케돈 공의회는 예수님의 위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거나 뒤섞이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7)사람이 되신 말씀 :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과 일치하시며 그분을 가장 잘 드러내시는 ‘말씀’ 이십니다. 말씀은 곧 사람이 되신 하느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으로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느님의 말씀이며 예수님께 해당되는 것은 하느님께도 해당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한 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요한 1,14)

†.함께 기도해 주세요.

◎주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받기를 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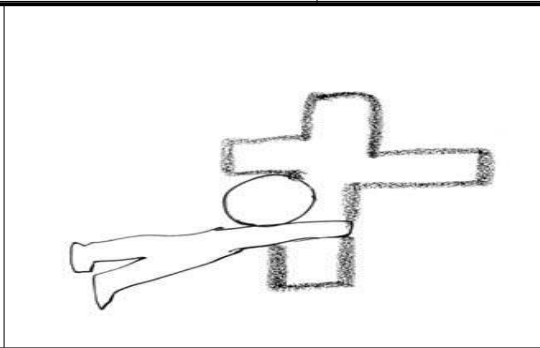
윤안나/황애다/원정은.카타리나/성낙순.안나 백정심.막달레나/전기례.베레나/김나미.로사 김옥륜.세실리아/추소연.세실리아/염안드레아 김숙자.수산나/서향자.글라라/김초지.마리아 황순이.마리아/최이주.베아따/이규청.제노비아 신용경.그레고리오/염모니카/배미성.오틸리아 박모란.글라라/김광진.요한/원헤리나.헬레나

◎오늘의 미사지향(미사신청;박율리아.916-990-6531/박프란치스코.909-573-5322)◎

구분	지향	봉헌자	구분	지향	봉헌자
생	(생일)임원호,시몬의 영육간 건강	이종만.모세		합동위령마사(설)	

간장종지

◎ 물과 뿌리 ◎  
 화분에 물을 흠뻑주었는데도  
 바닥이 젖지않는다.  
 뿌리가 물을 꼭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있듯이.  
 (강은교 글라라.시인/김복태 사도요한.화가)



(광고)                    본당의 쇄신;본당은 친교의 집.기도하는 집.동네의 샘입니다.

주보제작;박봉준.프란치스코 살레시오(909- 573-5322) E-Mail:bongjun5322@gmail.com

<p><b>신세계여행사</b> 148 Grand Ave.Oakland, CA 94612 Raymond(베로니카) (510)451-7487 688-0157</p>	<p><b>Kim' s Pro Handymen</b> 주택수리일체.무료견적 수리비용 절감 5810 Shadow Creek Rd. Sacramento CA,95841 김광열 (510)789-7876 kimkwangyeo152@gmail.com</p>	<p><b>FARMERS</b> <b>배정순 종합보험</b> 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CA 95827 (916)362-3300 (916)475-3770:cell</p>	<p><b>에어컨 수리</b> Air Conditioner Service &amp; Repair 배용환(율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p>
---	--	---	---

<p><b>SNOW WHITE DENTAL</b> 6416 Tupelo Dr.Cirtus Heights,CA 95621 장원석(바오로) (916)729-1441 (916)230-6768;한국어</p>	<p><b>클라라 가정양로원</b> (Clara Care Home) 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스테파노) 김옥기(클라라) (530)771-7715 204-8878</p>	<p><b>서은미 부동산</b> Keller Williams Realty 8525 Madison Ave. #122 Fair Oaks, CA 95628 서은미(안나) (916)860-3873</p>	<p><b>Hair Story Salon</b> 9723 Folsom Blvd. #B Sacramento,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린(클라라) (916)342-7072</p>
---	--	---	--

<p><b>메리서 부동산 · 용자 · 재정서비스</b> ·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및 자문 · 주택용자/SBA/Commercial/Land ·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 서주연(마리아) (916)271-3671 · <a href="mailto:maryseo@gmail.com">maryseo@gmail.com</a> SACRAMENTO . DUBLIN .LA K-TOWN</p>	<p><b>1.2.3 Auto Body정비</b> 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호영베드로) (916)366-0123</p>	<p><b>JIMMY KIM GOLF SCHOOL</b> ~Sunrise Golf Course~ 6412 Sunrise Blvd. Citrus Heights CA 95610 Jimmy Kim(안토니오) (916)605-6974</p>
--	--	--

<p><b>최병엽공인회계사</b> Byungyeub Choi CPA &amp; Associates Inc. 9521Folsom Blvd.suit P Sacramento,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916)363-2345</p>	<p><b>Bad Credit? Call For Free Credit Titan Credit</b> 1911 Douglas Blvd. Suite 85-416 Roseville CA 95661 Larry Chiarella,Esq (916)709-7777 rarry@titancredit.com</p>	<p><b>Samurai Sushi</b> 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CA95742 신영후(토마스) (916) 353-1112 samuraisushisac.com</p>	<p><b>Bradshaw Optometry</b> 3557 Bradshaw Rd. #2E Sacramento, CA 95827 김기상(바오로) (916)361-2020 (916)361-0433; fax</p>
---	--	---	---

--	--	--	--

